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결눈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결눈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결눈

완성된 이름

결눈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결눈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남이 모르도록 얼굴을 돌리지 않고 눈알만 굴려서 보는 시선.

요약 연대표

표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갓눈	-	-	-	-
결눈	-	-	-	-
건눈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남이 모르도록 얼굴을 돌리지 않고 눈알만 굴려서 보는 시선.

문헌의 첫 기록

18세기

수록 용례

10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8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결눈'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남이 모르도록 얼굴을 돌리지 않고 눈알만 굴려서 보는 시선.

☞ 결눈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결눈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갇눈 사전 표기 요약	—	—	—	●→	●→	●→
결눈 사전 표기 요약	—	—	—	—	—	●→
견눈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갇눈
18세기19세기20세기
- 결눈
20세기현재
- 견눈
20세기

곶눈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곶눈의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곶눈’의 옛말인 ‘곶눈’은 18세기부터 나타난다.

곶눈의 말의 구성과 어원

‘곶눈’은 어떤 대상의 옆을 뜻하는 ‘곶’과 ‘눈’이 결합한 것으로, ‘곶’은 ‘곶’을 소리대로 표기한 것이다.

곶눈의 표기와 소리의 특징

15세기부터 나타나는 ‘곶’은 자음 조사 앞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곶’으로 나타났는데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이후 ‘곶’으로 표기되었다. 20세기부터 원형을 밝혀 표기된 ‘곶눈’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20세기에는 ‘곶눈’을 소리대로 표기한 ‘곶눈’도 나타난다.

문헌 속의 곶눈

전체 용례 10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8세기 곶눈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곶눈

66 문헌 용례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비님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존 디 무른 디 골희지 말고 워령 충창 건너가서 情엿 말 하려 하고 겹눈을 흘깃 보니.

㉮ 현대어 풀이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워령 충창 건너가서 정의 말을 하려 하고 겹눈으로 흘깃 보니.

19세기 겹눈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겹눈

66 문헌 용례

운봉영장이 겹눈으로 어수를 살펴보니 면방인활하고 안담한화하여 흑백이 청슈하고 미란츄 월하여.

㉮ 현대어 풀이

운봉 영장이 겹눈으로 어사를 살펴보니 면방인활(面方印濶, 얼굴이 네모지고 인당이 넓다)하고 안담한파(眼淡寒波, 눈이 차가운 물처럼 맑다)하여 흑백이 청수(淸秀)하고 미만추월(眉彎秋月, 눈썹이 가을의 초승달 같다)하여.

66 문헌 용례

존 디 마른 디 갈희지 말고 월형 통창 건너 가서 情엿 말 하랴 하고 겹눈을 얼핏 보니.

㉮ 현대어 풀이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워령 충창 건너가서 정담(情談)을 하려 하고 겹눈으로 얼핏 보니.

66 문헌 용례

것눈 [側目].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것눈, 견눈, 겹눈 용례 6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것눈, 견눈, 겹눈

출처 1907 귀의성 상:107

용례 05

66 문헌 용례

아히 업은 뒤짐 진 손으로 아히를 들싸불며 부라질을 하고 셔서 김승지 선 거슬 것눈으로는 보아도 바루 쳐다보지 아니하고 천연하더라.

원 현대어 풀이

아이 업은 뒷짐 진 손으로 아이를 들싸붙여 부라질을 하고 서서 김승지 선 것을 겹눈으로는 보아도 바로 쳐다보지 않고 천연하더라.

출처 1907 보감 1:312ㄱ

용례 06

66 문헌 용례

말딩이 것눈으로 더를 보니 그 녀종이 무서워서 시작하였던 말을 못치지 못하고 물너간 후로는 다시 오지 아니하고.

원 현대어 풀이

말징이 겹눈으로 그를 보니 그 여종이 무서워서 시작하였던 말을 마치지 못하고 물러간 후로는 다시 오지 않고.

출처 1911 치악산 하:34

용례 07

66 문헌 용례

주인은 겹눈으로 그 거동을 살펴 가며 홍참의를 망석중이 놀리듯 건넌산 꾸짖기로 격동을 하여 분을 도드노라고 밤이 깊어가는 것을 몰으더라.

㉮ 현대어 풀이

주인은 겹눈으로 그 거동을 살펴 가며 홍참의를 망석중이 놀리듯 건넌산 꾸짖기로 격동을 하여 분을 돋우노라고 밤이 깊어가는 것을 모르더라.

출처 1922 동아일보 4월 26일 4면

용례 08

66 문헌 용례

이날도 성년옥은 책을 보고 잇는 안해의 엽흐로가서 그 빨내 뭉치를 손에 들고 의자에 걸어 안고자 하매 부인은 겹눈으로 흘심 보면서 『그 걸네 뭉치는 다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7 조선일보 3월 26일 석간 3면

용례 09

66 문헌 용례

나는 저컨 높직한 곧에 우단보를 덮은 테불 앞에 안락의자 우에 여송연을 삐뚜름하게 물고 비스듬이 앉아서 눈을 반쯤 나리뜨고 겹눈으로 이쪽저쪽을 슬슬 갈마보면.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2 동아일보 5월 26일 5면

용례 10

66 문헌 용례

채녀들이 가무로서 태자를 위로하려는 것을 겹눈으로 보면서 태자는 이편으로 돌아와서 자기 침실 고요한 곳에 몸을 커다랗게 내여 던졌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결눈 관련 낱말

결

결눈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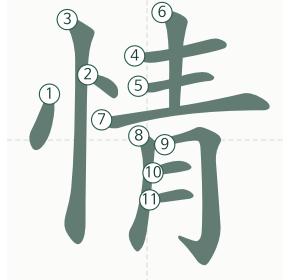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결눈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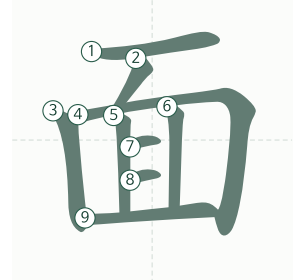
뜻·음 뜻 정
총 11획 · 부수 心



hanja.wordrow.kr/한자/情/

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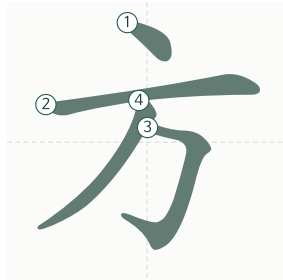
뜻·음 낯 면
총 9획 · 부수 面



hanja.wordrow.kr/한자/面/

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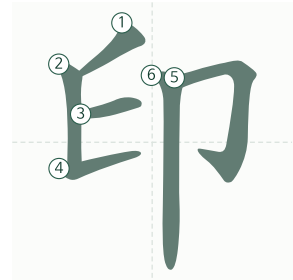
뜻·음 모 [稜] 방
총 4획 · 부수 方



hanja.wordrow.kr/한자/方/

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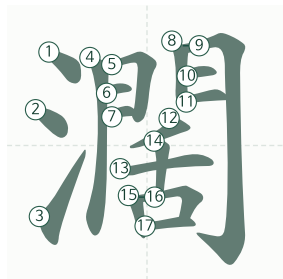
뜻·음 도장 인
총 6획 · 부수 卂



hanja.wordrow.kr/한자/印/

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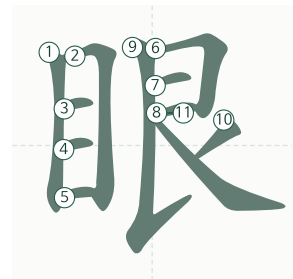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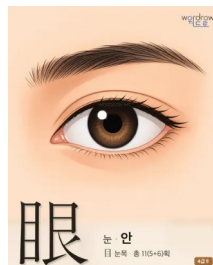
뜻·음 넓을 활
총 17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潤/

眼

뜻·음 눈 안
총 11획 · 부수 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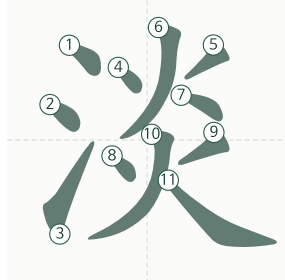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眼/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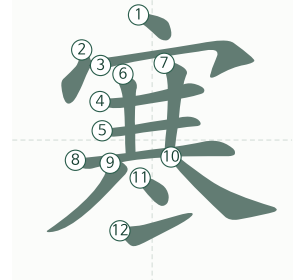
뜻·음 맑을 담
총 11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淡/

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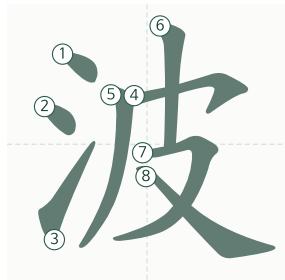
뜻·음 찰한
총 12획 · 부수 宀



hanja.wordrow.kr/한자/寒/

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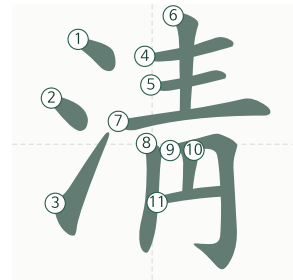
뜻·음 물결 파
총 8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波/

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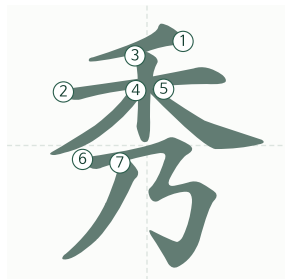
뜻·음 맑을 청
총 11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清/

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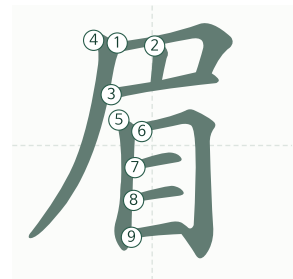
뜻·음 빼어날 수
총 7획 · 부수 禾



hanja.wordrow.kr/한자/秀/

眉

뜻·음 눈썹 미
총 9획 · 부수 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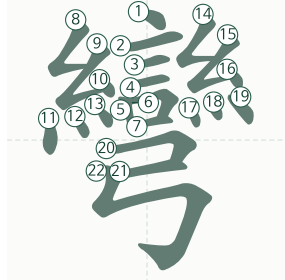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眉/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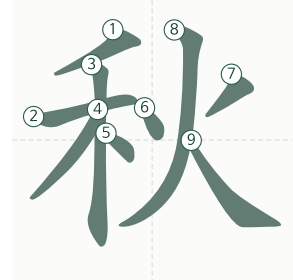
뜻·음 굽을 만
총 22획 · 부수 弓



hanja.wordrow.kr/한자/彎/

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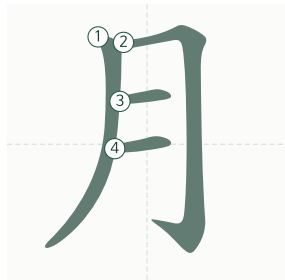
뜻·음 가을 추
총 9획 · 부수 禾



hanja.wordrow.kr/한자/秋/

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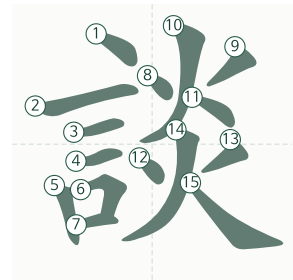
뜻·음 달 월
총 4획 · 부수 月



hanja.wordrow.kr/한자/月/

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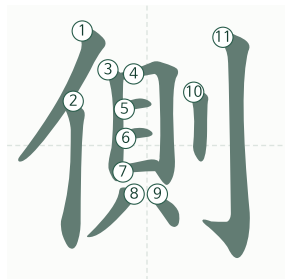
뜻·음 말씀담
총 15획 · 부수 言



hanja.wordrow.kr/한자/談/

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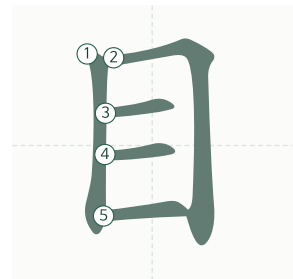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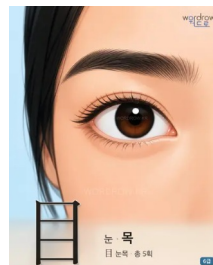
뜻·음 곁 측
총 11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側/

目

뜻·음 눈 목
총 5획 · 부수 目



hanja.wordrow.kr/한자/目/